

# 陽谷 蘇世讓의 燕行詩 研究

— ‘會同館 門禁’의 認識 樣相을 中心으로 —

李 聖 炯\*

<目次>

- |                |                        |
|----------------|------------------------|
| I. 緒論          | III. 陽谷의 ‘會同館 門禁’ 認識樣相 |
| II. 陽谷의 燕行詩 概觀 | IV. 結論                 |

<국문 초록>

本稿는 陽谷 蘇世讓(1486-1562)의 燕行詩중에서 北경의 ‘會同館 門禁’에 대한 인식 양상과 연행문학상 의의를 고찰하고자 했다.

양곡의 연행시는 전체적으로 7언 절구와 율시의 비중이 높데, 이는 외교상 응제와 수창에 대비하기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작품에는 ‘門禁’과 ‘遊覽’의 상황이 뚜렷하게 대비되어 진솔하게 노정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문금에 대한 자괴감과 비판의식을 드러낸 작품들을 살펴보면, 먼저 양곡의 문금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無異於籓子’, 즉 ‘內服’이며 禮儀之邦인 조선을 辮髮한 오랑캐와 동일하게 홀대하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이는 조선이 주변국에 비하여 인정받았던 우월적 지위도 부정 또는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양곡은 회동관에서 죄수나 다름없는 감금생활을 楚囚로 비유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문금에 비판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만 ‘人臣無外交’의 관례에 의해 적극적인 교섭에 한계를 느끼고 귀향에 대한 소망을 노정하는 것으로 체념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 군포 흥진고등학교 교사 / great-one@hanmail.net

다음으로 ‘五日一出館’과 ‘皇都遊覽’의 興懷를 표현한 작품을 살펴보면, 유람을 통해서 직접 목도한 경물에 대하여 현장감과 다양한 소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 장소와 연관된 전고도 다양하게 사용하여 함축성과 상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과 유람에 대한 자부심을 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문금 상황에서의 작품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작품세계를 보이는데, 이원적 작품세계에는 회동관과 문금이라는 특수한 장소와 상황이 작품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문금은 조선 연행사들의 외출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엄격히 제한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明代 燕行錄에서 北京에 대한 묘사나 외국 인사들과의 교류가 제한적이고 적게 발견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주제어】 會同館, 門禁, 陽谷, 蘇世讓, 燕行錄, 燕行詩, 燕行使

## I. 緒論

本稿는 陽谷 蘇世讓(1486-1562)의 燕行詩<sup>1)</sup> 중에서 북경의 ‘會同館 門禁’에 대한 인식 양상과 연행문학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蘇世讓의 字는 彦謙, 號는 陽谷, 退休堂 등이며, 本貫이 晉州이고, 故鄉은 益山이다. 양곡은 李荇, 鄭士龍, 申光漢, 李希輔, 成世昌, 洪暹과 더불어 16세기 전반 관각 시단을 대표하던 문인으로 평가된다.<sup>2)</sup> 양곡은 출중한 詩才로 中宗 16년(1521)에 遠接使 李荇의 從事官으로 발탁되어, 接伴 업무의 성공에 기여한 공로를 계기로 中宗朝 외교의 핵심 인사가 될 수 있었다.<sup>3)</sup> 특히 중종 28년(1533)에는 황태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進

1) 『陽谷集』의 3권과 4권의 한시 중에서 연행관련 작품이 분명하지만, 별도의 통합된 제목이 없이 漢詩 作品群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들을 다른 한시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필자가 현재 학계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인 ‘燕行詩’로 명명했다.

2) 尹采根, 「陽谷 蘇世讓 漢詩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第19輯, 한국한문학회, 1996, p.119. 참조.

賀使로 連行하면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工曹判書에 除授되기도 하였다.<sup>4)</sup>

기존 양곡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한시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연구,<sup>5)</sup> 『赴京日記』의 入明活動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고,<sup>6)</sup> 인왕산 淸心堂에서의 문학 활동,<sup>7)</sup> 「俛仰亭記」와 「題松石居士山家八詠」,<sup>8)</sup> 『全明詞』에 수록된 「菩薩蠻」·「憶王孫」,<sup>9)</sup> 全州圈 士族社會의 형성과 활동<sup>10)</sup> 등에서 부분적인 연구 성과가 있다. 최근에는 중국학자 李騰淵과 譚妮如가 陽谷 燕行詩의 주요관점을 분석한 研究를 발표하여 양곡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sup>11)</sup> 다만 『陽谷集』에 1482수의 漢詩와 碑·碣·表·祭文·記·序·雜著 등 여러 종류의 散文이 전해지는데, 문집의 많은 작품에 비하여 선행연구들의 성과가 제한적인 아쉬움이 있다.

- 
- 3) 權仁溶, 「明中期 朝鮮의 入明使行」, 『명청사연구』 第19輯, 명청사학회, 2003, pp.112-113. 참조.
  - 4) 『中宗實錄』 卷77, <29年 5月 3日(己巳)>, “以蘇世讓爲工曹判書, 沈彥光爲吏曹參判, 趙士秀爲司諫院正言.”
  - 5) 洪石影, 「陽谷 蘇世讓 攷: 그의 生涯와 文學」, 『文理研究』 1, 圓光大學校 文理科大學 學徒護國團, 1983.  
沈圭政, 「陽谷 蘇世讓의 生涯와 詩」, 高麗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尹采根, 앞의 논문, 1996.  
沈圭政, 「양곡 소세양의 신월시와 황진이의 반월시 고찰」, 『論文集』 제37호, 원광대학교, 2006.
  - 6) 權仁溶, 위의 논문.
  - 7) 이종목, 「조선 초·중기 인왕산에서의 문학활동」, 『인문과학』 제9집, 서울 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 8) 안장리,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 『열상고전연구』 제25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 9) 柳己洙, 「『全明詞』에 수록된 朝鮮人詞 研究」, 『中國學研究』 제51집, 중국학연구회, 2010.
  - 10) 吳京擇, 「15~16C 前半 全州圈 士族社會의 形成과 活動」, 『韓國學論叢』 제36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 11) 李騰淵·譚妮如, 「試論蘇世讓中國使行詩的主要觀點」, 『中國人文科學』 第47輯, 중국인문학회, 2011.

최근 학계의 燕行錄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방대한 양의 연행록이 수집·公刊된 것을 계기로<sup>12)</sup>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燕行學’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연행록 연구의 주제와 분야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고, 그 성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이른바 ‘域外漢籍’으로서 燕行錄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sup>13)</sup> 다만, 외국 연구를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여 주제가 중복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며, 18세기의 산문 연행록을 중심으로 개별 인물의 문화 교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sup>14)</sup>

연행문학 연구에 있어서는 연행록의 間學問性과 統攝性을 바탕으로 기존의 세부 학문 분류, ‘순수혈통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접근태도도 필요하다.<sup>15)</sup> 특히 양곡은 ‘회동관 문금’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는데, 對明 燕行文學의 이해에 ‘會同館’과 ‘門禁’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중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여러 편의 연구 성과가 있지만,<sup>16)</sup> 국

12) 현재까지 公刊된 연행록 자료집성의 내용은 김영진과 최은주의 논문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김영진, 「燕行錄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試論」, 『대동한문학』 제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pp.68-69.; 최은주, 「연행록 자료 집성 및 번역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제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pp.9-13.

중국 학계에서 연행록 연구가 활성화된 것도 『연행록』의 수집·공간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王禹浪·程功·劉加明, 「近二十年中國『燕行錄』研究綜述」, 『哈爾濱學院學報』第33卷 第11期, 2012, p.2 참조)

13) 중국의 연행록 연구 현황을 분석한 대표 논문은 아래와 같다.

王禹浪·程功·劉加明, 위의 논문.; 漆永祥, 「關於“燕行錄”界定及收錄範圍之我見」, 『古跡整理研究學刊』, 2010.; 裴英嬉, 「燕行錄의 研究史回顧」, 『臺灣歷史學報』 43, 2009.

14) 洪性鳩, 「중국 학계의 연행록 연구」, 『대동한문학』 제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p.119 참조.

15) 김현미, 「연행록 문학 방면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대동한문학』 제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p.56 참조.

16) 회동관과 명대 외교기구에 대한 대표적인 중국 논문으로는 아래와 같다.

王建峰, 「明朝“提督會同館主事”設置探微」, 『遼寧大學學報』 第34卷 第6期, 2006.; 李雲泉, 「明代中央外事機構論考」, 『東嶽論叢』 第27卷 第5期, 2006.;

내의 연구 성과는 매우 적다.<sup>17)</sup>

본고에서는 이상의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아직 연구성과가 미흡한 조선전기 양곡의 연행시에 나타난 ‘회동관 문금’ 인식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작품의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 蘇巡의 『葆眞堂燕行日記』, 陽谷의 『赴京日記』,<sup>18)</sup> 『中宗實錄』 등은 주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 II. 陽谷의 燕行詩 概觀

양곡은 進賀使의 正使로서 書狀官 李夢弼, 質正官 權應昌과 함께 중종 28년(1533) 12월 16일 한양을 출발하여 다음해 4월 24일까지 총 157일의 노정을 往還하였다. 긴 여정 중에 지방관들의 전별연과 매사냥,<sup>19)</sup> 얼음낚시, 儼戲 등을 관람하며 비교적 편안한 여정도 있었지만, 연행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

王建峰, 「明代會同館管理人員及其職掌考述」, 『煙台大學學報』 第18卷 第2期, 2005.; 王靜, 「明朝會同館論考」, 『中國邊疆史地研究』 第3期, 2002.

회동관 문금에 대한 대표적인 중국 논문으로는 아래와 같다.

劉品, 「明代玉河館門禁及相關問題考述」, 『安徽史學』 第5期, 2012.; 李善洪, 「明代會同館對朝鮮使臣“門禁”問題研究」, 『曆史學研究』 第3期, 2012.

17) 현재 국내에서 회동관에 대해서 발표된 연구로 확인되는 것은 강동엽(「연행사와 회동관」, 『比較文學』 41권, 한국비교문학회, 2007.)과 祁慶富(「明清時期北京的朝鮮使館」, 『아세아문화연구』 제8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의 연구 2편이 있다. 다만 기경부 교수는 中央民族大學 少數民族研究中心 主任으로 중국학자이기 때문에 국내 연구자는 강동엽의 연구가 유일하다. 두 연구는 주로 조선 후기의 회동관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다.

18) 『葆眞堂燕行日記』와 『赴京日記』의 서지사항은 權仁溶, 앞의 논문, p.110 참조.

19) 연행록에서 매사냥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데, 양곡은 12월 20일에 金巖館의 後洞과 12월 29일에 평양 浮碧樓에서 2차례나 매사냥을 관람했음을 볼 수 있다. 매사냥은 우리 민족이 이른 시기부터 즐겼지만, 지배층의 매우 사치스럽고 호사스러운 놀이로 인식되어 조선 초기에 태조가 금령을 하달하기도 하였다.(전재진, 「時調의 ‘매사냥’ 담론과 문화권적 通涉의 양상」, 『인문과학』 제92집,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pp.119-121 참조).

먼저 發行 23일 만인 1월 3일 郭山郡에 도착한 양곡은 冬至使 先來通事 李碩說로부터 皇太子 急逝 소식을 듣고는 조정의 대책과 하교를 받 고서야 일정을 재개했다.<sup>20)</sup> 또한 압록강을 도강하던 날 아침인 1월 21일 에는 冬至使 任樞가 高嶺驛에서 客死했다는 소식을 듣고 침울해 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明 관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獐子들과의 갈등, 악천 후 등 괴로운 여정의 연속이었다.

발행 69일 만인 中宗 29년(1534) 2월 25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는데, 양 곡의 고민은 會同館에 도착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薨逝한 황태자의 誕生 進賀라는 난감한 사명의 수행과 예부에 博文을 올 려 당시 외교의 핵심 쟁점이었던 ‘會同館 門禁 解除’와 ‘舊例 回復’요청 이라는 難題를 해결해야만 했는데,<sup>21)</sup> 양곡의 복명내용을 보면 문금 해 제를 위한 교섭도 중요한 사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22)</sup> 양곡은 45일 간 북경에 체류하는 동안 결국 進賀의 뜻을 무사히 進達하고 문금도 해 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후 3월 12일에 귀국길에 올라 4월 24일에 복명 하는 것으로 연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양곡은 연행중의 소회와 견문을 한시와 일기로 남겼다. 양곡의 『赴京 日記』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명대 회동관과 연행중의 소회를 표현한 연행시에 대하여 간략히 개관해 보도록 하겠다.

양곡의 연행시는 『陽谷集』 3권의 첫 작품인 「浮碧樓」<sup>23)</sup>를 시작으로 4 권의 「渡猪灘」까지 221제 258수의 작품이 있으며, 첫 작품을 시작으로

20) 『中宗實錄』 卷76, <29년 1월 12일> 기사 및 『中宗實錄』 卷76, <29년 1월 13일> 기사 참조.

21) 『中宗實錄』 卷76, <28년 12월 16일>, “遣判書蘇世讓, 進賀皇嗣誕生. 世讓啓曰 臣行呈文禮部, 故凡買賣之事, 皆不爲矣. … 傳曰 呈文, 非爲貿易也, 以接待之道, 異於古耳.”

22) 『中宗實錄』 卷77, <29年 4月 24日(庚申)> 참조.

23) “醉歸不覺寒更盡 斷送浮生癸巳年”, “明朝匹馬燕山道 回首茲遊又隔年”이라는 시구를 통해서 癸巳年(1533)에 燕京을 다녀오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날자와 노정에 따라 순서대로 작품이 수록되었다. 연행시의 마지막에는 己亥年(1539) 7월 16일에 작성된 양곡의 後識가 첨부되었는데, 연행의 始末, 文學觀, 燕行詩의 수록 경위 등을 밝혔다.

양곡의 燕行詩는 조카인 葆眞堂 蘇巡이 子弟軍官으로 從行하면서 원고를 순대로 모아 시집으로 만들었고, 귀국후 양곡이 불태우려는 것을 아들인 遂가 자기 집에 숨겨 놓아서 현전될 수 있었다.<sup>24)</sup> 그중 연행시의 작품세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매일 시 짓기를 부과하여 여정의 땀과 말 타기의 수고를 조금 잊고자 했다. … 내 생각으로 詩道는 性情에 근본 한 것이 언어로 드러나서 깊은 소회를 펼쳐낸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예로부터 소인목객들이 다투어 시 짓기를 즐겼는데, 간혹 이에 연좌되어 화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연행시집이 지어진 것이 나그네의 괴로운 심중에서 처음 나왔지만, 생각지 못한 비방이 있었으니, 시가 자신에게 누가 됨이 이와 같구나.<sup>25)</sup>

이 글은 양곡의 本質論的 文學觀을 살필 수 있는 부분으로, 나그네로 떠돌면서[羈旅] 피곤하고 괴로웠던[困苦] 마음을[性情] 언어로 펼쳐서 드러내고자 한 것이[暢敘] 연행시의 창작동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양곡의 연행시는 典故의 사용이 적고, 性情의 幽懷를 진솔하게 노정한 작품

24) 蘇世讓, 『陽谷集』 卷4, “猶子巡從行, 仍撰次成集. 還朝後, 有言其奉使做詩之非, 至於彈壓. … 自是以後, 絕意不作, 且欲焚稿. 兒子遂, 潛藏其家, 祕而不傳. … 遂乃袖此集來示, 感舊之念, 忽萌於懷.”

25) 蘇世讓, 『陽谷集』 卷4. “日課賦詩, 少忘其道途之遠, 鞍馬之勞. … 余念詩之道, 根乎性情而發乎言語, 暢敘其幽懷. 故自古騷人墨士, 爭樂爲之, 而或有坐是被禍者. 是集之作, 初發於羈旅困苦之中, 而乃有不虞之謗, 詩之累身如是夫.”

26) 이러한 문학관은 1559년의 「老松先生使日本行錄序」에서도 외교상 專對를 위해서 使臣의 作詩능력이 중요한 소양이며, 人情에 근본한 한시의 가치를 긍정한 부분에서도 재확인 된다.(蘇世讓, 『陽谷集』 卷14, 「老松先生使日本行錄序」, “昔吾夫子以誦詩三百, 爲能專對於四方. 詩固使者之所宜爲, 矧本乎人情, 該乎物理, 出於中而發於外者哉. 先生使萬里海外, 錄數十百首, 齊夷險一死生, 無羈危憤悱之語, 雅而不凡, 激而不怒, 可謂能專對者非耶.”)

이 많아서 문학관에 충실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최근 연구 성과에서는 양곡 연행시를 ‘愛鄉愛國의 情懷, 華夷世界觀, 嘉靖 社會現實 情況에 대한 批評’으로 범주화하여 고찰하기도 하였다.<sup>27)</sup>

연행시를 노정과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형식 노정	5언시			7언시			6언시	고체시	합계
	절구	율시	배율	절구	율시	배율			
한양~북경 (69일)	5	9	1	28	28	4	0	1	67제 76수
북경 체류 (45일)	0	3	2	27	15	1	0	6	40제 54수
북경~한양 (43일)	7	14	8	63	33	1	1	1	114제 128수
전체 (157일)	12	26	11	118	76	6	1	8	221제 258수

이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7언 절구와 율시의 비중이 높고, 귀국길에서 전체 제작 편수의 절반 정도가 창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양곡은 원래 율시로 입신했던 인물이었다.<sup>28)</sup> 한시의 형식상 五言律詩는 한시의 正統, 典雅한 표현감각을 대표한다면, 七言律詩는 壯麗, 典麗한 감각 및 명확한 對偶性을 대표한다. 특히 칠언율시는 對偶化, 整合化, 自己完結化라는 동양인의 사고 형태를 가장 명확하게 구현한 시형식이기 때문에<sup>29)</sup> 한시에서 서정성과 예술성의 측면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은 시형식으로 평가되고, 외교상 응제와 수창의 근간이 되었다.<sup>30)</sup> 북경 체류기까지 7언 율시의 창작 비율이 높은 것도 외교상 응제와 수창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 禮部尙書 夏言에게 칭찬을 받아 유명해진 「上馬宴」, 「詣國子監謁聖」이 모두 7언 율시였다. 또한 다른 연행록과

27) 李騰淵·譚妮如, 앞의 논문.

28) 洪暹, 『陽谷集』 卷2, 「陽谷先生神道碑銘」, “詩句驚人, 筆法亦得松雪體. 弘治甲子, 中進士. 乙丑, 燕山主以律詩取士, 公作居第一.”

29) 申用浩 編述,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2, pp.136-137 참조.

30) 拙稿, 「梅溪 曹偉의 燕行文學 研究」, 『漢文古典研究』 第25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 pp.309-310 참조.

다르게 귀로에서 창작된 작품이 많다는 것도 특징인데, 사명을 완수한 뒤 심적인 부담감이 완화되면서 자유로운 창작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양곡의 연행시는 귀국 후에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中宗은 明의 유력가로 부상하던 夏言의 호평을 받은 작품을 칭찬하고,<sup>31)</sup> 이어 국위선양의 공로를 인정하여 5월 3일에 공조판서로 임명하였다. 明에 文名을 떨친 것이 門禁 해제라는 현안의 해결보다 더욱 큰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sup>32)</sup> 결과적으로 살펴보다라도, 夏言이 陽谷과 鄭士龍의 문금해제 요청을 긍정적으로 대변해 주었던 부분은<sup>33)</sup> 외교상의 전대능력이 현안 문제의 해결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연행문학의 측면에서 볼 때, 대명 연행록이 대청 연행록에 비하여 인적교류와 북경인식이 현저히 적은 것은 ‘會同館 門禁’이 주요 원인이었다. 양곡은 이 문제의 해결이 주요 임무였기 때문에 작품에는 ‘門禁’과 ‘遊覽’의 상황이 뚜렷하게 대비되어 진솔하게 노정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문금이 없었을 경우 대명 연행문학의 작품세계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었을 것인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고찰하겠다.

- 
- 31) 『中宗實錄』 卷77, <29年 4月 27日(癸亥)>, “傳于政院曰 今見蘇世讓赴京所製律詩, 甚好. 中國之所以貴我邦, 以其有此文華也. 明日招世讓, 言予甚嘉之意, 使司饗院饋酒.”
- 32) 洪暹, 『陽谷集』 卷2, 「陽谷先生神道碑銘」, “冬, 遞爲知中樞府. 如京師, 賀生皇太子. 禮部尙書夏言, 名藉一時. 聞公有能詩聲, 求見公作, 稱美不已, 贈以書冊. 及東還, 上亦覽公行稿, 命題賦詩數首而進, 錫賚便蕃. 俄判工曹. 言者以公入中朝, 與學士唱和, 將有後弊, 論執甚力, 竟遞, 復判漢城尹.”
- 33) 『增補文獻備考』 卷174, 「交聘考」 4, “二十九年, 進賀使蘇世讓, 呈文明禮部, 乞罷門禁. 尙書夏言奉皇旨題曰 … 合候命下, 每五日一次, 許令該國正使及書狀官等, 出館於附近市衢觀遊, 本部仍筭付空閑通事一員, 陪侍出入, 以示禮待防衛之意. 冬至使鄭士龍, 又呈文禮部, 乞依舊例, 勿拘五日, 自由出入. 尙書夏言奉皇旨題曰 … 合候命下行, 令該館提督主事, 於該國一行使人等, 聽其每日出入, 不必限制.”

### Ⅲ. 陽谷의 ‘會同館 門禁’ 認識樣相

문학 연구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찰은 작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眞義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익하다.<sup>34)</sup> 특히 공간이라는 미지의 영역이 장소감을 갖게 되려면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경험은 선행 지식을 통한 간접 경험과 실제 체험의 누적이라는 직접 경험을 통하여 심화되기 마련이고, 이를 통해서 구체화·정형화된 장소감을 갖게 된다.<sup>35)</sup>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회동관’과 ‘문금’의 고찰은 연행사들의 動線과 장소인식, 외교활동과 인적 교류 등의 한계와 의의에 대한 관점을 도출하는 기저가 된다.

明代の 會同館은 南館과 北館이 있었는데, 會同館 南館이 玉河 中橋 부근에 있었고 瓦刺, 朝鮮, 日本, 安南 등지의 조공 사신들이 사용하였기 때문에<sup>36)</sup> 연행록에서는 주로 玉河館으로 불렸다. 會同館이라는 명칭은 이미 遼나라 때부터 있었는데,<sup>37)</sup> 주변국의 사신을 접대하고, 중국의 관원들이 公務로 사용하던 驛館이었다.<sup>38)</sup>

남관이 있었던 東江米巷은 현재 北京市 正陽門 동쪽의 東交民巷이며, 동북편으로 북관이 있는 澄清坊이 있었다.<sup>39)</sup> 玉河는 什刹海로부터 紫禁

34) 黃永武, 『中國詩學』 鑑賞, 設計篇, 臺灣 巨流圖書公司, 1980, “大凡史地實物的體驗觀察, 對於詩句眞義的闡明, 最爲有益”

35) 이-푸 투안 지음,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2007, 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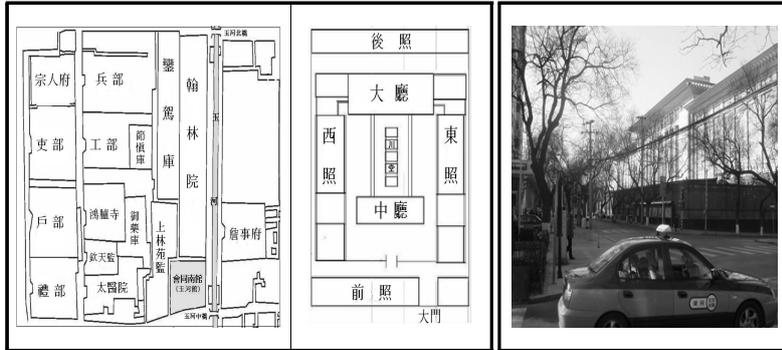
36) 『明會典』 卷145, 「兵部二十八驛傳會同館」, “凡各王府公差人員, 及遼東建州, 毛憐, 海西等衛女直, 朵顏三衛達子, 土魯番, 撒馬兒罕, 哈密, 赤斤, 罕東等衛回回, 西番法王, 洮岷等處, 雲貴, 四川, 湖廣土官番人等, 俱於北館安頓. 迤北瓦刺, 朝鮮, 日本, 安南等國進貢陪臣人等, 俱於南館安頓.”

37) 『日下舊聞考』 卷375, 「京城總紀」, p.594, “會同館, 燕山客館也, 遼已有之.”

38) 劉晶, 앞의 논문, p.21.

39) 張爵, 『京師五城坊巷胡同集』, 北京古籍出版社, 1983, 第5頁 참조.

城의 동쪽을 따라 南下하는 人工하천으로 東江米巷과 옥하가 교차하는 곳에 玉河 中橋가 있었고, 옥하 中橋 근처에 옥하관이 있었다. 현재 옥하는 복개되어 正義路가 되었고, 明代 玉河館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는 중국 최고 인민법원이 위치하고 있다.<sup>40)</sup>



【옥하관 위치 설명도 및 내부구조 상상도】<sup>41)</sup> 【옥하관 위치 추정장소】<sup>42)</sup>

회동관은 단순히 숙소로서의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公貿易’의 장소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보수집과 인적교류<sup>43)</sup>, 漂流人의 수용 및 刷還<sup>44)</sup>, 明의 禮儀를 체험<sup>45)</sup>할 수 있

40) 祁慶富, 앞의 논문, p.63. 참조.

41) 이 그림은 劉晶의 논문에 수록된 것인데, 簡字를 繁字로 바꾸고 활자를 키웠으며, 회동관과 옥하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다. 원본 그림은 劉晶, 앞의 논문, p.22.에 있다.

42) 이 사진은 필자가 2011년 1월 20일 연행로 답사팀과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에 촬영한 것으로, 玉河館 館舍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인 중국 최고 인민법원의 모습이다. 촬영 장소는 玉河 中橋가 있었던 곳이며, 사진의 택시 진행방향 도로가 玉河가 있었던 正義路이고, 최고 인민법원 앞 도로가 東交民巷이다.

43) 윤경희, 『燕行과 子弟軍官』, 『비평문학』 제38호, 韓國批評文學會, 2010, p.48 참조.

또한 문금으로 인적교류를 제한했어도 연행중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였기 때문에 수창이나 방문 등을 통한 인적교류가 여타의 장소에 비하여 다양하

는 장소였다.

대명 연행록에서의 회동관은 안정감, 편안함 보다는 拘束과 幽鬱한 장소감을 나타내는 표상이었으며, 연행사들은 자신을 ‘楚囚’<sup>46)</sup>로 대변하곤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門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門禁이란 사신들이 공식적인 외교활동 이외에 衙門 관원과의 접촉, 市肆의 임의 출입, 觀光 活動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會同館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다.<sup>47)</sup> 永樂-成化 연간의 燕行使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회동관을 출입하면서 서책을 구입하거나 북경 유람 같은 私的 활동을 할 수 있었다.<sup>48)</sup> 이것은 명이 조선을 ‘禮儀之邦’으로 대우해 주는 외교상의 특권이었다.<sup>49)</sup> 一例로 成化 13년(1477) 正朝使 尹壕가 회동관에서 문금을 당했다가 다시 解禁을 해준 사실이 있었다. 당시 문금의 원인은 聖節使 李封의 通事 芮亨昌이 금수품인 弓角을 구입했다 적발된 일과 연관된 사건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처분은 조선에 대한 ‘厚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50)</sup>

고 활발하게 발생했다.

- 44) 『明會典』 卷108, 「禮部六十六朝貢四朝貢通例」, “凡朝鮮國漂流夷人, 至會同館, 卽行該館通事序班譯審明白, 日給薪米養贍, 兵部委官伴送, 沿途應付. 至遼東鎮巡衙門, 另差人員, 轉送歸國, 通行國王知會. 如該國使臣在館, 卽領帶回, 一體給賞應付.”
- 45) 『明史』 卷56, 「禮志十」, “凡蕃國遣使朝貢, 至驛, 遣應天府同知禮待. 明日至會同館, 中書省奏聞, 命禮部侍郎於館中禮待如儀. 宴畢, 習儀三日, 擇日朝見.”
- 46) 楚의 樂官 鍾儀가 罽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거문고로 조나라의 악곡을 연주하며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로, 異域萬里 타국에서 구속되어 어찌할 수 없는 신세를 나타낸다.
- 47) 李善洪, 앞의 논문, p.144.
- 48) 『增補文獻備考』, p.174, “餘舊嘗忝承上朝時, 見從行者出入無禁. 或質禮叩疑於先覺, 或貨訪書籍於市肆, 或縱觀皇都文物之盛, 而以廣其見聞, 或薰灸中華道義之風, 而以資其學習, 益知皇都懷綏之無間, 有異他邦”
- 49) 이외에도 조선은 공무역에서 세금을 면제 받고, 수레의 무제한 사용 등의 특권을 누리기도 하였다.(高豔林, 「明代中朝使臣往來研究」, 『南開學報』 第5期, 2005, p.76.)

1498년 聖節使로 연행한 曹偉도 명조 선비와 교유하고 문천상의 사당을 배알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까지는 出館과 交遊는 비교적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이후 문금이 조금씩 엄격해 졌다. 弘治 13년(1500)에 聖節使의 質定官으로 연행한 李苻도 獐子와 같이 간혀 지내면서 西湖 같은 명승지 유람을 못하는 아쉬움을 노정하여,<sup>52)</sup> 자유로운 출입과 유람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嘉靖 元年(1522)에 通事 金利錫이 금서인 『大明一統志』를 구입한 사실이 禮部郎中 孫存에게 적발된 일을 계기로 조선도 문금이 엄격히 적용되어,<sup>53)</sup> 明末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가정시기의 문금이 가장 엄격했다.<sup>54)</sup>

본 장에서는 연행시에 노정된 會同館 門禁의 인식양상을 ‘門禁에 대한 自愧感과 批判’과 ‘五日一出館과 皇都遊覽의 興懷’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門禁에 대한 自愧感과 批判

양곡은 회동관 문금을 해결하기 위한 사명도 받았기 때문에 燕行 전부터 문금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은 門禁을 ‘無異於獐子’로 인식하였는데, 중종 24년(1529)에 進賀使 崔漢洪이 회동관의 상황을 복명한 내용에서 보인다.<sup>55)</sup> 이후 양곡이 연행하기 직전인 중종 28년(1533

50) 『成宗實錄』 卷77, <8年 閏2月 6日(甲辰)> 참조.

51) 曹偉, 『梅溪集』 卷3, 「燕行錄」 참조.

52) 李苻, 『容齋先生集』 卷4, 「朝天錄」, ‘大熱’, “燕京六月天大暑, 不借清陰到羈旅. 門前車馬塵濛濛, 辮髮毳裘與同處. 皇朝法網日縝密, 客館塊然等幽圉. 西湖勝景久聞名, 欲往觀之莫我許.”

53) 『中宗實錄』 卷44, <17年 2月 3日(庚辰)>, “聖節使沈順徑, 尊諡使孫澍, 回自京師, 孫澍啓曰 通事金利錫買官本書冊, 禮部郎中孫存 見之, 怒執牙子, 著枷立街上三十餘日, 以序班不能禁, 並移咨刑部論罪, 禁本國人不許浪出於外.”

54) 李善洪, 앞의 논문, p.144.

55) 『中宗實錄』 卷65, 24年 3月 18日(癸丑). “中原別無他奇, 但風俗不如古. 我國人若

년) 12월 10일에 문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중에서도 ‘無異於獐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sup>56)</sup> 조선은 明使가 出來하면 迎接都監을 구성하여 접대에 극진한 예와 정성을 다했다. 따라서 禮儀之邦인 조선이 明의 厚待를 받고,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것을 기대 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無異於獐子’로 대변된 것이다.

다음 ‘옥하관에서’라는 작품을 통해서 양곡의 복잡한 심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隔屋醜虜輩	건너편 숙소의 추악한 오랑캐들이
辮髮忽來訪	변발머리하고 갑자기 방문하기에
揮之使退去	손을 가로저어 물러가게 했더니만
蹙口恣話誑	쫄그리며 방자하게 욕지거리 하네 <sup>57)</sup>

이 시는 양곡이 2월 25일 회동관에 도착하면서 있었던 소회를 표현한 5언 36구의 작품 중 일부이다. ‘辮髮’은 여진족, 몽골족 등 북방 유목민들의 일반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상연에서 나오는 변발한 오랑캐는 몽골계통의 瓦剌 사행단의 일원으로 보이는데, 연행록에서는 주로 獐子로 불렀다. 女眞도 변발을 했지만 회동관 북관에 거처했다.<sup>58)</sup> 조선과 여진과의 충돌을 우려한 明이 1460년(天順 4年) 이후부터 조선 연행단을 烏蠻驛으로 분관시켰기 때문이다.<sup>59)</sup> 다음 연에서 이들의 갑작스런 방문에

不贈物, 則雖許還歸, 車兩等物, 專不出許, 待之無異於獐子.”

56) 『中宗實錄』 卷76, <28年 12月 10日(戊寅)>, “大司憲權輓曰 朝廷以中朝待我國人不如舊, 欲呈文于禮部. 臣意以爲, 中朝待我國人, 特異於他國者, 其來久矣, 而近來接待之道, 全不如古, 拘禁無異於獐子者, 豈無其由乎?” … 吏曹判書金安老曰 “自孫存拘禁我國人, 無異於獐子. 祖宗朝接待之道, 至於今日, 而廢毀, 可謂痛心.”

57) 蘇世讓, 『陽谷集』 卷3, 「玉河館」.

58) 『明會典』 卷145, 「兵部二十八驛傳會同館」, “凡各王府公差人員, 及遼東建州, 毛憐, 海西等衛女直, 朵顏三衛達子, 土魯番, 撒馬兒罕, 哈密, 赤斤, 罕東等衛回回, 西番法王, 洮岷等處, 雲貴, 四川, 湖廣土官番人等, 俱於北館安頓. 迤北瓦剌, 朝鮮, 日本, 安南等國進貢陪臣人等, 俱於南館安頓.”

당황한 양곡이 만남을 거부하자, 달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욕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여 無禮한 이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辮髮’은 ‘辮髮左衽’으로,<sup>60)</sup> ‘被髮左衽’<sup>61)</sup>과 같이 오랑캐의 복식이나 풍속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반대로 ‘解辮’은 중국에 귀순한다는 의미가 된다.<sup>62)</sup> 주지하듯 조선은 중국 다음가는 문명국으로 자부하였다. 특히 양곡은 달자의 ‘辮髮’은 반문명의 상징이고, 辮髮한 달자는 문명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醜虜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sup>63)</sup> ‘前有虎行’에서도 움푹한 눈과 큰 코에 털옷 입고 辮髮한 달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군신과 부자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고 비판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sup>64)</sup> 그러나 문명국임을 자부하는 조선도 결국 醜虜인 獐子와 같이 문금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즉 ‘無異於獐子’는 자괴감과 모욕감이 함축된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이다.

59) 『明英宗實錄』 <天順4年, 11月 戊寅>, “通事, 都督同知馬顯等言 朝鮮國使臣七十餘人, 毛獐女直來朝者三百人, 雜處於會同館. 二處舊有仇隙, 恐致爭競, 請分館處之. 禮部議遷女直, 其頭目尙修哈不從. 朝鮮使臣請遷, 乃命遷於烏蠻驛.”

양곡의 연행 무렵에는 조선과 女眞族이 관계가 안정되면서 회동관에 함께 머물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연행시 중에 함경도 종성에서 온 여진과의 만남을 표현한 작품이 있다.(蘇世讓, 『陽谷集』 卷3, 「西照女直數十來觀, 令陳歌舞以戲之」, 「冠裳雖異語音通, 云是鍾城城底戎」). 다만 獐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묘사로 일관되고 있어, 본문의 醜虜는 명의 회동관 제도와 양곡의 이민족 인식에 따라 獐子로 판단했다.

60) 成俔, 『虛白堂文集』 卷8, 「送權同知赴京序」, “生靈爲魚然臙腥之所染, 辮髮左衽者久矣.”

61) 『論語』, 「憲問」, “子曰 管仲 相桓公霸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 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62) 『文選』, 「丘希範與陳伯之書」, “夜郎滇池, 解辮請職.”

63) 拙稿, 「燕行使들의 間文化的 體驗에 대한 認識 樣相 考察」, 『漢文教育研究』 第35輯,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pp.251-265. 참조.

64) 蘇世讓, 『陽谷集』 卷4, 「前有虎行」, “深目高鼻彼何人, 旃裘辮髮非我親. 腥臙滿目狀貌獐, 安知父子與君臣.”

문금 상황에서의 소회를 표현한 ‘부질없이 짓다.’라는 작품을 살펴보자.

白頭孤館楚囚同	흰머리하고 쓸쓸한 회동관에 楚囚같은 신세
行坐逍遙密室中	밀실 속에서 앉았다 일어나 거닐기만 할 뿐
一段春愁禁不得	한줄기 봄날의 근심거리 금할 길이 없건만
滿城花木雨濛濛	성안 가득한 꽃과 나무 가랑비에 젖어있네 <sup>65)</sup>

이 시는 윤 2월 1일에 창작된 7언절구 2수중 두 번째 작품이다. 葆眞堂의 기록에 보면 전날 저녁에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봄 비를 맞아 싱그러운 꽃과 나무를 보고 당시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양곡은 연행 당시 48세로 적지 않은 나이로 연행길에 올랐다. 한해가 지났으니 이 작품은 49세의 작품이다.

起句와 承句는 문금으로 회동관에 갇혀 있으니 마치 이역만리 타향에서 갇힌 죄수[楚囚] 같다고 자괴감을 표현하면서, 마치 죄수가 감옥 안에서 서성이 듯 숙소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轉句와 結句에서는 성안 가득한 꽃들이 전날 가랑비에 먼지를 씻어 버리고 더욱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대비시킴으로써 답답하고 우울한 심정을 더욱 극대화 시키고 있다.

특히 起句의 ‘楚囚’는 연행사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慨歎하는 표현으로 여러 연행록에서 散見된다.<sup>66)</sup> 문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양곡은 북경을 떠나 6일 뒤인 3월 18일 작품의 “한가로이 우의를 펼치고 시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황도에서 머물며 돌아가지 못할 때보단 낫기 때문이라네.”<sup>67)</sup>라는 표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제목에서

65) 蘇世讓, 『陽谷集』 卷3, 「謾成」.

66) 拙稿, 「壬亂收拾期 使行文學 研究」,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148-157. 참조.

67) 蘇世讓, 『陽谷集』 卷4, 「十八日 發永平 風雨大作 咫尺不辨 人馬皆仆 西來行李之苦 此日最甚」, “昨日塵沙捲地飛 不堪撩亂撲征衣 今朝風雨漫天惡 更奈淒

밝혔듯이 악천후로 연행 여정 중에서 가장 고생스런 날이었음에도, 북경에 있을 때 보다는 낫다고 述懷한 것이다.

다음으로 ‘삼월 초엿새에 황제께서 조회를 보셨고, 상사를 받았다.’라는 제목의 작품을 통해서 문금에 대한 우회적 비판의식을 볼 수 있다.

赭袍高拱儼堯眉	붉은 용포 높이 앉으사, 용안 의젓한데
旭日纔臨扇影遲	아침 해 막 비취 부채 그림자 느릿하네
一代衣冠周典禮	일대의 의관은 주나라 전례를 따르는데
千年文物漢威儀	천년의 문물에는 한의 위위가 서려있네
纖塵不到黃金闕	작은 티끌은 황금궁궐에 이르지 못하고
佳氣常浮白玉墀	아름다운 기운 백옥계단에 항상 서렸네
海外微臣還拜賜	해동의 미신 다시 賞賜 받아 절 올리고
退朝空誦角弓詩	퇴조하며 부질없이 각궁편을 읊조리네 <sup>68)</sup>

이 시는 連日 免朝되면서 賞賜를 받지 못한 양곡이 禮部郎中 曾存仁의 자문에 따라 親賞을 기다리다 드디어 3월 16일에 상사를 받고 소회를 표현한 작품이다.

수련에서는 곤룡포를 입고 조회를 받는 황제의 모습과 떠오르는 태양과 부채를 통해서 엄숙한 조회의 분위기를 묘사하였다. 함련은 양곡이 朝參儀를 통해서 보았던 조회의 모습으로, 明이 周와 漢의 예악과 문물 제도를 계승하고 있는 정경을 표현한 것이다. 경련에서는 조회가 이루어지는 皇極殿의 화려하고 정결한 모습과 香煙이 서려 신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백옥계단을 묘사하였다. 마지막 미련에서는 親賞을 받고 퇴조하는 양곡의 소회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미련의 ‘角弓’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경』, 「小雅」, 「角弓篇」은 九族을 멀리하고 小人을 가까이 하는 왕을 풍자한 노래이다. 즉 조선을 ‘內服’<sup>69)</sup>과 ‘禮儀之邦’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문금을 통하

迷向夕暉 旅店荒涼人跡絕 長空昏黑雁過稀 閑披襪襖尋詩料 猶勝皇都滯未歸”  
68) 蘇世讓, 『陽谷集』 卷3, 「三月初六日 帝視朝 乃受賞賜」.

여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角弓은 芮亨昌의 선례를 증의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전술했듯 芮亨昌이 弓角을 밀매했다가 문금을 당했지만, 곧 解禁된 사실을 들어 문금을 해제하지 않은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되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대략 3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嘉靖帝(재위 1521-1566)의 쇠국정책 강화를 들 수 있다. 가정제는 즉위하면서 조공무역을 엄격히 제한한 것과 아울러 倭寇의 침입을 계기로 禁海令과 함께 해상의 私貿易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sup>70)</sup> 이러한 대외정책의 연장선에서 문금을 엄격히 추진하면서, 외국 사신들과 그 수행원들에 의한 금서 구매, 금수품 구매, 군사정보 수집 활동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연행단의 지나친 이윤 추구활동 때문이다.<sup>71)</sup> 연행을 통해서 공인된 무역활동은 ‘조공무역’과 ‘공무역’이었다. 공무역이 진행되면서 明이 금지한 ‘사무역’과 ‘밀무역’이 병행하여 성행하자,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문금을 시행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매인인 牙子들의 지속적인 로비활동 때문이다. 牙子들이 중계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通事나 提督會同館主事 등과 결탁하고는, 명의 관리들에게 문금 유지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로비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牙子들의 로비는 문금 이후 발생한 문금의 지속요인인데, 陽谷이 귀국 후 4월 24일에 복명한 내용을 보면, 가정 13년(1534)에도 아자들의 로비활동이 상당히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sup>72)</sup>

69) 조선은 중국의 5服制에 의한 지리구분상 荒服에 해당되지만, 외교상 ‘1년 3貢’의 조공체제로 정례화된 점은 明이 조선을 畿內 또는 內服의 자격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一例가 된다.

70) 劉晶, 앞의 논문, p.23.

71) 『中宗實錄』 卷55, <20年 10月 27日(壬子)>, “而近年, 爲其使者率多無恥之人, 惟貨寶是貿, 而通事與子弟之輩, 貪婪尤甚, 至行詐貿易, 致中國輕待我國, 使臣入館, 閉門拘禁, 有同韃子焉. 祖宗見寵於中朝之美掃地矣”

72) 『中宗實錄』 卷77, <29年 4月 24日(庚申)>, “蘇世讓曰 … 其後有人云, 先時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마연’이라는 작품을 살펴보자.

宴開迎餞兩旬間	잔치 열어 맞이하기 스무날이 넘건만
三月皇州却未還	삼월 황도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하네
柳絮白於衰客鬢	버들 솜은 늙은 나그네 살쩍보다 희고
桃花紅勝美人顏	복숭아꽃은 미인 얼굴보다 붉그레하네
春愁黯黯延空館	봄 수심은 어둑하게 빈 객관을 채우고
歸興翩翩滿故山	돌아가고픈 맘만 훨훨 고향에 가득하네
早晚旬當公事了	조만간 맡고 있는 공무를 마치고 나면,
拂衣長嘯出秦關	옷 털고 휘파람 불며 산해관을 나서리 <sup>73)</sup>

이 시는 윤 2월 26일 상마연에 참여한 소회를 표현한 작품이다. 상마연은 귀국하는 사신을 위한 일종의 전별연으로 사행의 중요한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련에서는 회동관에 入館한 뒤로 20여일 동안 크고 작은 연회가 있었지만, 춘삼월이 거의 지나고 있는 데도 아직 귀국하지 못함을 표현하였다. 함련에서는 하얀 버들개지가 날리고, 붉은 복숭아꽃이 핀 봄날의 경치 속에서 白首의 나그네와 紅顏의 미인을 대비시킴으로써 旅愁를 자아내고 있다. 경련에서는 好時節에 회동관에 간혀 마음만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春愁와 귀국의 염원을 더욱 심화시켰다. 미련에서는 상마연은 마쳤으니 곧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전체 시상을 갈무리 하였다.

陪臣인 燕行使로서 명의 법령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음을 알기에 결국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귀국에 오르는 것에서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작품에서도 ‘滯空館’, ‘拘幽氣’ 등

閉門，故牙子等凡買賣之物，中間減半自取，因以致富。今聞許令出入，恐其無利，多聚銀兩，行賂主事… 臣於此言，雖不足信，然主事於開門之事，初則甚勉焉，中間忽變所言，所爲皆與初相反。”

73) 蘇世讓, 『陽谷集』卷3, 「上馬宴」.

으로 문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자연스럽게 현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歸計’, ‘歸心’, ‘歸途’로 노정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기실 양곡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문금의 해제를 얻어 냈으니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문금해결의 성과를 얻었던 것이다. 또한 과외의 성과도 있었으니 이 작품과 다음 장에서 살펴볼 「詣國子監謁聖」은 당시 명의 유력가로 성장하던 禮部尙書 夏言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귀국길에 오르겠다는 포부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양곡의 문금에 대한 자괴감과 비판적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다.

문금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海禁’의 연장선에서 명이 자국의 이익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외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문금에 대한 양곡의 인식은 한마디로 ‘無異於獐子’, 즉 중국의 복식과 예제를 따르는 예의지방 조선을 獐鬚한 오랑캐와 동일하게 홀대하는 것이었다. 회동관의 문금은 조선이 주변국에 비하여 인정받았던 우월적 지위가 부정 또는 약화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양곡은 회동관에서 죄수나 다름없는 감금생활을 楚囚로 비유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중국의 예악을 준수하는 조선을 폄박하는 문금에 비판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만 陪臣인 燕行使로서 ‘人臣無外交’<sup>74)</sup>의 관례에 의해 적극적인 교섭에 한계를 느끼고 귀향에 대한 소망을 노정하는 것으로 체념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 2. 五日一出館과 皇都遊覽의 興懷

門禁이 지속되자 조선은 解禁을 위해 여러 차례 외교적 교섭을 시도하였다. 嘉靖 元年(1522)의 문금 시행 초기에는 조선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嘉靖 4년(1525) 3월 正朝使 朴壕의 복명을 살펴보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sup>75)</sup> 同年 8

74) 『禮記』, 「郊特生」 8, “爲人臣者無外交 不敢貳君也”

75) 『中宗實錄』 卷53, <20年 3月 7日(丙寅)>, “又我國人出入玉河館時, 必主事署

월에는 聖節使 鄭允謙이 舊例에 의거해서 해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문을 올려 예부의 인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提督會同館主事 陳邦僞의 擅斷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sup>76)</sup> 문금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조선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고심하였다. 명과의 무역을 금지하자는 강경론도 나왔지만 우선 무역에서는 약제나 서적 외에 비단이나 사치품의 교역을 금하고, 物文을 통해 조선의 충심을 보여 명의 마음을 되돌리자는 의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sup>77)</sup> 결정된 논의를 토대로 양곡이 12월 16일에 중종에게 정문을 통한 문금 해결의 사명을 하달 받고 연행하게 된다.

양곡은 윤2월 1일에 禮部尙書 夏言에서 咨文을 진달한 뒤에 윤2월 4일에 주사에게 문금 해제를 요청하는 정문을 바쳤고, 통사를 통해서 윤2월 6일에 예부의 기별을 들었는데, 윤2월 17일에야 ‘五日一出館’을 허락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양곡은 회동관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잠시나마 朝陽門에서 會同館까지의 北京 市肆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3차례 회동관을 벗어나 유람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중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五日一出館’의 공문 하달 전인 윤2월 2일에 제독청을 방문한 것이며, 나머지 2회는 공문의 규정에 의거한 出館이었다. 윤2월 25일에 國子監과 海印寺를 유람하고, 5일 뒤인 3월 1일에는 歷代帝王廟와 朝天宮 등을 유람함으로써 부분적이긴 하지만 문금 해제의 성과를 누리기도 하였다. 특히 문금 해제라는 성과로 얻게 된 2일의 유람 경험에서 양곡은 북경의 변화함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러한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먼저 ‘옥하관에서’라는 작품을 통하여 북경에 대한 양곡의 첫인상을

名於牌然後，得以出入，防禁之嚴苛，甚於頃日矣。”

76) 『中宗實錄』 卷56, <21年 3月 19日(壬寅)>, “臣到北京後，提督主事陳邦僞，如前阻禁，不許出入。… 他不依席尙書也罷，他也不依朝廷。”

77) 『中宗實錄』 卷76, <28年 12月 10日(戊寅)>. 참조.

살펴보자.

曉裝發通州	새벽에 행장 꾸려, 통주를 출발하고
西馳行意王	왕명을 전하러 서쪽으로 말 달렸네
倏至朝陽門	어느덧 조양문 앞에 다다르고 보니
城高千仞壯	성벽은 천길 높이로 솟아 웅장하네
中使譏出入	황제의 中使는 출입을 기찰하는데
檠戟森相向	검붉은 창 뺨뺨하게 서로를 향했네
徐驅不敢過	천천히 말 몰고 감히 못 지나는 건
——名字唱	사람마다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네 <sup>78)</sup>

이 작품은 2월 25일 회동관에서 소회를 표현한 내용 중에 朝陽門은 통과하여 북경에 입성하는 소회를 표현한 부분이다. 이날 양곡은 통주의 서문을 나와서 北京에 이르는 40여리에 길을 따라 인가가 즐비하였고, 조양문에 이르러 성문 밖 묘당에서 휴식을 취한 뒤 회동관의 西照에 숙소를 정했다고 밝혔다.<sup>79)</sup>

첫 번째 연에서는 북경 인근의 통주에서 새벽에 출발하여 서쪽으로 말 달려 왔음을 밝혔고, 두 번째 연에서는 북경성 外城의 東門인 조양문에 도착한 소회를 표현하였다. 세 번째 연에서는 황제가 파견한 中使와 그 수행원들의 검은 비단 두른 창을 통해서 삼엄한 기찰의 분위기를 묘사하였고, 네 번째 연에서는 이름이 호명되어야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찰의 절차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通州를 출발하여 조양문 관리에게 人情을 상납하고 성문을 통과하는 했지만<sup>80)</sup> 이 작품에서는 북경 입성의 시작점인 조양문의 웅장함과

78) 蘇世讓, 『陽谷集』 卷3, 「玉河館」.

79) 蘇世讓, 『赴京日記』, p.13, “廿五日, 入通州東門, 出西門. 自此至皇城四十里間, 挾路人家櫛比. 至朝陽門, 小憩城外廟堂, 乃入到寓玉河館西照.”

80) 蘇巡, 『葆真堂燕行日記』, p.22, “到至皇城朝陽門, 則守門中使, 拒而不納. 立馬良久, 問諸門人, 必受錢乃許入云. 姑就廟堂小憩, 令通事給人情, 乃入向玉河館.”

관문을 지키는 관원, 그리고 일일이 호명하며 譏察하는 절차에 압도당한 듯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葆眞堂도 ‘魂翻眼倒’, ‘眩奪人目’, ‘亦難形狀’의 표현을 통해서 북경의 화려하고 장대한 첫인상에 경탄을 금하지 못했다.<sup>81)</sup> 특히 웅장한 성벽과 ‘譏而不征’<sup>82)</sup>의 모습은 현상의 묘사를 통해서 皇城 진입에 대한 감격과 尊慕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五日一出館’이 허락되면서 북경 유람의 소회를 표현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국자감에 나아가 공자를 배알하다.’라는 작품을 살펴보자.

晨起衣冠謁素王	새벽에 일어나 의관 갖춰 공자를 배알하니
大平絃誦喜洋洋	태평성대 현송하는 기쁨이 끝없이 샘솟네
德尊不廢千年享	덕 높으시어 천년의 향사 끊이지 않으시고
道大難窺數仞墻	도 크셔 몇 길 담 같은 경지 엿볼 수 없네
壇上杏花紅半落	단 위 붉은 살구꽃은 꽃잎이 반은 졌어도
庭前檜樹翠成行	뜰 앞의 회화나무는 푸르게 줄지어 서있네
平生只會歌鴻雁	평생 다만 홍안편 노래할 줄로만 알았는데
今日摩挲石鼓傍	오늘에서야 석고의 곁을 어루만져 보누나 <sup>83)</sup>

이 시는 윤 2월 25일에 ‘五日一出館’에 의거하여 育才坊, 大興縣, 成賢街를 거쳐 국자감에 방문하여 孔子像를 배알하고 石鼓를 직접 어루만져 본 소회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이날 양곡은 書狀官 李夢弼, 質正官 權應昌, 帶率子弟 蘇巡 그리고 序班 張鏊 등과 국자감과 해인사를 유람하였다. 북경의 국자감은 元代인 1306년에 건립되었는데, 현재 北京 東城區 安定門 안쪽의 國子監街에 있으며, 거리의 양측으로는 회화나무가

81) 蘇巡, 『葆眞堂燕行日記』, p.22, “城門萬仞, 樓閣數層, 所視珍怪, 魂翻眼倒, 不知其爲何物也. 道路兩邊, 亦甚廣遠, 廈屋櫛比, 朱門粉墻, 光照白日, 眩奪人目. 況宮闕之壯, 公府之大, 巍巍蕩蕩, 亦難形狀. 都人士女, 綵服鮮華, 儀容端凝, 尤見其中華氣像矣.”

82) 『孟子』, 「公孫丑」上, “關 譏而不征 則天下之旅 皆悅而願出於其路矣”

83) 蘇世讓, 『陽谷集』 卷3, 「詣國子監謁聖」.

늘어서 있다.

수련에서는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소왕이신 공자를 배알하니, 絃歌를 통해 禮樂으로 武城을 다스렸던 子游가<sup>84)</sup> 스승인 공자를 뵈듯 기쁨이 샘솟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공자가 덕이 높아 오랜 세월동안 후인의 존경을 받고 있고, 또한 안연의 탄식을 用事<sup>85)</sup>하여 공자의 경지를 헤아릴 수 없음을 찬양하였다. 경련에서는 반쯤 진 杏花와 푸른 槐樹를 대조적으로 묘사하였는데, 특히 槐樹는 공자의 변치 않는 도를 상징한다.<sup>86)</sup> 미련에서는 주선왕 때의 유물로 알려진 石鼓를 직접 어루만질 수 있는 감격을 노정하였다. 여기에서 ‘鴻雁’은<sup>87)</sup> 『詩經』, 「小雅」의 편명으로 周 宣王이 流民을 安集시킨 공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石鼓’는 주 선왕이 岐山 남쪽에서 사냥하던 내용을 새겨 놓은 獵碣로 그 모양이 북을 닮았다고 해서 石鼓라 칭하는데, 당나라 초기 鳳翔 지역에서 출토되어, 원나라 때 북경의 태학으로 옮겨졌다.<sup>88)</sup>

이 작품은 양곡의 기타 연행시에 비하여 典故의 활용이 많은 편인데, 특히 미련은 韓愈의 「石鼓歌」를 폭넓게 용사하여 국자감을 직접 방문한 감격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한유는 주선왕의 중흥의 업적을 칭송하며 그 공적을 기록한 石鼓文이 시경에 수록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고, 태학에 잘 보관하여 유생들이 학문을 절차탁마할 수 있기를 염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sup>89)</sup> 양곡은 평생 시경의 詩句로만 주

84) 『論語』, 「陽貨」, “子之武城, 聞弦歌之聲. 夫子莞爾而笑曰 割雞焉用牛刀? 子游對曰 昔者偃也聞諸夫子曰 君子學道則愛人, 小人學道則易使也. 子曰 二三子. 偃之言是也. 前言戲之耳.”

85) 『論語』, 「子罕」, “仰之彌高 鑽之彌堅 …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

86) 正祖, 『弘齋全書』 卷119, 「經史講義」 56, 綱目 10, “王充曰 孔子廟有古石壇 古石儀古檜, 檜卽孔子手植也. … 古檜闕里誌亦有之, 傳爲夫子手植是也.”

87) 正祖, 『弘齋全書』 卷90, 「經史講義」 27, 詩 7, “此詩是流民安集之後所作, 則由於仁政之行. … 有渠對 … 然後之主張序說者, 以爲安集之後, 生理未獲, 故復訴於上, 政可見宣王察隱之德, 是說亦通矣. … 若鏞對 … 故既云安集而復言哀鳴, 非宣王若恫之仁, 何以察此哉.”

88) 『薊山紀程』 卷3, 「留館」, <癸亥十二月二十六日(丁亥)> 참조.

선왕의 업적을 노래할 뻔 했지만, 직접 북경의 국자감에 방문하여 석고를 어루만져봄으로써 敬慕의念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국자감에 안치된 석고를 통해서는 先儒인 韓愈의 瓘을 상기하였고, ‘摩挲’를 통해서는 ‘誰復著手爲摩挲’에 대한 實踐躬行的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중종실록에서는 이 작품과 앞서 살펴본 「上馬宴」에 대한 양곡의 처사를 비판적으로 표현하였지만,<sup>90)</sup> 후대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91)</sup> 또한 夏言이 당시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양곡의 작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점으로 인해 귀국 후 중종으로부터 공조판서에 특배되는 영예를 누리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양곡의 專對 역량을 통해 以文華國의 성과와 자부심을 보여준 작품으로서 의의가 큰 작품이다. 또한 회동관이 인물과 문화교류의 기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된다.

다음으로 2번째 出館 유람의 소회를 표현한 ‘조천궁을 유람하다.’는 작품을 살펴보자.

畫靜黃蜂課蜜忙	한 낮 고요한데, 꿀벌은 꿀 따러 바쁘고
石壇松偃閑幽房	석단의 소나무 굽어 그윽한 방 가리웠네
寥寥一大雲間吠	적막한데 구름 사이로 개 울음 들려오니
始覺仙家氣味長	신선살이 좋은 맛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 <sup>92)</sup>

89) 邱燮友, 『新譯 唐詩三百首』, 「七言古詩」, ‘石鼓歌·韓愈’, “周綱凌遲四海沸, 宣王憤起揮天戈. 大開明堂受朝賀, 諸侯劍佩鳴相磨. 搜于岐陽騁雄俊, 萬里禽獸皆遮羅. 鑄勒成告萬世, 鑿石作鼓隳嵯峨. … 陋儒編詩不收入, 二雅褊迫無委蛇. 孔子西行不到秦, 倚撫星宿遺羲娥. … 聖恩若許留太學, 諸生講解得切磋. … 牧童敲火牛礪角, 誰復著手爲摩挲.”

90) 『中宗實錄』 卷77, <29年 4月 27日(癸亥)>, “史臣曰 世讓以見褒中朝之詞, 自達於上前, 略無謙讓, 多有矜才術能之意, 當時識者多笑之.”

91) 魚叔權, 『稗官雜記』 卷4, “按此詩 偶爲夏公所見 而謂之誇示中原 不亦過乎. 夏公心既許之, 至於贈其詩稿 則恐不作惡詩看也.”; 李圭景, 『詩家點燈』 卷5, 「陽谷皇都太學詩見劾」, “今見此詩旨義安帖華美. 其曰 惡詩云者, 斯言之玷者, 青蠅之累, 令人有憾.”

92) 蘇世讓, 『陽谷集』 卷3, 「遊朝天宮」.

이 시는 두 번째 出館인 3월 1일에 조천궁을 유람한 소회를 표현한 2수의 절구 중 2번째 작품이다. 朝天宮은 南京의 朝天宮을 모방하여 明代인 1433년에 건립되었으며, 북경의 西城區 阜城門 안쪽에 있는데, 당시 北京 최대의 道觀으로 明代에는 연행사들이 예를 익히던 장소였다.<sup>93)</sup>

기구에서는 조용한 한낮에 노란 꿀벌만 분주한 모습을 묘사하였고, 승구에서는 소나무 그림자 드리운 깊은 仙房을 묘사하여 고요하고 한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구에서는 구름 사이로 들려오는 개울음 소리로 순간적인 破寂을 표현하였고, 절구에서 조천궁에서 느낀 道觀의 한가한 소회로 시상을 마무리 하였다.

이 작품은 양곡이 조천궁이 道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가롭고 자연스러운 도가적 분위기를 표현한 것인데, 전구의 개울음 소리도 老子가 이상적인 국가를 묘사했던 말을 용사한 것이다.<sup>94)</sup> 양곡은 이날 조천궁에서 예를 익힌 것이 아니고 관광을 위해서 방문한 것이었기 때문에 회동관에 있을 때에 볼 수 없는 엽매이지 않고 한가로운 소회를 노정하여, 잠시 문금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양곡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문금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북경 명소를 유람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를 유람하다.’는 작품을 살펴보자.

連牆接屋千萬家	수천만 황도의 집들은 담장과 지붕이 잇닿았는데,
堆金積玉如相誇	황금과 옥을 높이 쌓아 서로 자랑하는 듯 하네
策轡茫茫無所詣	채찍, 고삐 잡아도 아득하여 갈 곳 모르겠는데
塵沙漠漠吹面紗	띠끌과 모래 먼지는 뿌옇게 면사위로 불어오네
.....	
人言海印寺非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해인사 도량이 멀지 않다네

93) 동지사 정사룡이 1535년 1월 27일에 복명한 내용을 통해서도 朝天宮이 翫儀의 장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中宗實錄』 卷79, <30年 1月 27日(戊子)>, “其後冬至, 習儀于朝天宮, 臣早進午門內, 見尙書入來而跪, 尙書亦停立.”)

94) 老子, 『道德經』 80, “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 不相往來.”

入門上堂僧午飯    문 열고 들어가 당에 오르니 스님들 점심드시네  
 試登高閣豁雙眸    높은 누각 오르니 광활한 경치 두 눈에 들어와  
 忽覺胸中破孤悶    홀연 깨달았네, 가슴속 외로운 시름 사라졌음을

.....

輪藏殿前共延佇    윤장전 앞에서 일행들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啜罷茶甌各歸去    뜨락에서 찻잔을 다 비우곤 각자 돌아 왔다네  
 茲遊亦足多環觀    이번 유람 또한 주위 경관 많이 둘러보았으니  
 持向邦人誇說興    우리 동방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스레 말하리<sup>95)</sup>

이 작품은 윤 2월 25일 해인사를 유람한 소회를 표현한 7언 고체시 중 일부이다. 海印寺는 元代 창건된 라마불교 사원으로 1429년에 重建된 뒤로 慈恩寺라고 개명되었으며, 北京市 西城區의 什刹海 銀錠橋 일대에 있었는데, 舊址는 현재 甁子胡同 서편에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해인사에 도착하기까지 觀光한 북경 시내의 변화함과 화려함에 양곡은 마치 시골 사람이 대도시를 처음 접한 듯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해인사의 누각에 올라 넓은 호수와 북경 시내의 경치를 한 눈에 조망하면서는 마음속 고민이 한 순간에 타파되었음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귀국해서 자랑하고 싶다고 말해서 ‘皇都遊覽’이라는 특별한 경험에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단락에서 胸中の ‘孤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 구절을 보면 시름을 사라지게 한 것이 두 눈에 들어오는 광활한 경치였음을 알 수 있다. 문금으로 회동관에서 楚囚처럼 갇혀 지낼 때의 모습과 다분히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다. 또한 연행의 주목적이었던 ‘문금해제’의 성과를 직접 확인한 감격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슴속 외로운 시름의 정체는 문금에 대한 시름인 것이다.

이 작품은 평측상 4구씩 환운되는 방식도 보여주고 있다. 운자는 ‘皓(상성)-麻(평성)-願(거성)-庚(평성)-寘(거성)-職(입성)-刪(평성)-語(상성)’韻目

95) 蘇世讓, 『陽谷集』 卷3, 「遊海印寺」.

으로 변화를 보이고, 내용도 환운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이것은 詩詞에 능했던 양곡이 換韻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유람의 소회를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고, 양곡의 문학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으로 ‘五日一出館’과 ‘皇都遊覽’의 興懷를 표현한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문금 상황에서의 작품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작품세계를 보인다. 특히 유람을 통해서 직접 목도한 경물에 대하여 현장감과 다양한 소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 장소와 연관된 전고도 다양하게 사용하여 함축성과 상징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과 유람에 대한 자부심을 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작품세계에는 회동관과 문금이라는 특수한 장소와 상황이 작품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다만 화려한 수식과 기교에 用心한 부분은 외교적 상황의 반영과 더불어 관각문학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가정 13년(1533) 11월에 鄭士龍이 문금의 완전한 해제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서 드디어 同月에 금령을 취소하게 되었다.<sup>96)</sup> 그러나 불과 1-2년 만에 문금은 다시 재개되어 明末까지 지속되었다. 문금이 조명 양국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히면서 결국 조선의 교섭노력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

#### IV. 結論

본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양곡의 연행시는 羈旅의 困苦 마음을 언어로 펼쳐서 드러내고자 하였

96) 『明世宗實錄』, <13年 11月(己巳)>, “先是, 四夷貢使至京師, 皆有防禁, 五日一出館, 令得遊觀貿易, 居常皆閉不出, 唯朝鮮 琉球使臣防之頗寬. 已而, 亦令五日一出. 至是, 朝鮮國王李懌以五日之禁, 乃朝廷所以待虜使而已, 爲冠裳國恥與虜同, 因禮部以請, 詔弛其禁.”

는데, 典故의 사용이 적고, 性情의 幽懷를 진솔하게 노정한 작품이 많다. 전체적으로 7언 절구와 율시의 비중이 높데, 이는 외교상 응제와 수창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작품에는 ‘門禁’과 ‘遊覽’의 상황이 뚜렷하게 대비되어 진솔하게 노정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문금에 대한 자괴감과 비판의식을 드러낸 작품들을 살펴보면, 먼저 양곡의 문금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無異於籓子’, 즉 ‘內服’이며 禮儀之邦인 조선을 辮髮한 오랑캐와 동일하게 홀대하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이는 조선이 주변국에 비하여 인정받았던 우월적 지위도 부정 또는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양곡은 회동관에서 죄수나 다름없는 감금생활을 楚囚로 비유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문금에 비판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만 ‘人臣無外交’의 관례에 의해 적극적인 교섭에 한계를 느끼고 귀향에 대한 소망을 노정하는 것으로 체념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五日一出館’과 ‘皇都遊覽’의 興懷를 표현한 작품을 살펴보면, 유람을 통해서 직접 목도한 경물에 대하여 현장감과 다양한 소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 장소와 연관된 전고도 다양하게 사용하여 함축성과 상징성을 높이려 하는 노력과 유람에 대한 자부심을 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문금 상황에서의 작품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작품세계를 보이는데, 이원적 작품세계에는 회동관과 문금이라는 특수한 장소와 상황이 작품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문금은 조선 연행사들의 외출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엄격히 제한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明代 燕行錄에서 北京에 대한 묘사나 외국 인사들과의 교류가 제한적이고 적게 발견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양곡의 이원적 작품세계는 문금이 없었을 경우 대명 연행문학의 작품세계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었을 것인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양곡의 문금에 대한 인식이 연행문학에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행록과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대의 회동관 문금이 명대 연행문학의 성격을 특징하는 중요한 외교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精緻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기약한다.

<參考 文獻>

『論語』 『孟子』 『詩經』 『禮記』 『文選』 『道德經』  
『成宗實錄』 『中宗實錄』 『通文館志』 『增補文獻備考』 『明史』  
『明會典』 『明太宗實錄』 『明世宗實錄』 『明英宗實錄』 『日下舊聞考』  
成 侃, 『虛白堂文集』  
蘇世讓, 『陽谷集』  
蘇 巡, 『葆真堂燕行日記』  
魚叔權, 『稗官雜記』  
李圭景, 『詩家點燈』  
李 荇, 『容齋先生集』  
正 祖, 『弘齋全書』  
曹 偉, 『梅溪集』

강동엽, 「연행사와 회동관」, 『比較文學』 41권, 한국비교문학회, 2007.  
權仁溶, 「明中期 朝鮮의 入明使行」, 『명청사연구』 第19輯, 명청사학회, 2003.  
김상홍, 『한시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김영진, 「燕行錄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試論」, 『대동한문학』 제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김현미, 「연행록 문학 방면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대동한문학』 제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柳己洙, 「『全明詞』에 수록된 朝鮮人詞 研究」, 『中國學研究』 제 51집, 중국학 연구회, 2010.  
申用浩 編述,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2.  
沈圭政, 「陽谷 蘇世讓의 生涯와 詩」, 高麗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 「양곡 소세양의 신월시와 황진이 의 반월시 고찰」, 『論文集』 제37호, 원광대학교, 2006.

- 안장리,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 『열상고전연구』 제25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 吳京擇, 「15~16C 前半 全州圈 士族社會의 形成과 活動」, 『韓國學論叢』 제36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 윤경희, 「燕行과 子弟軍官」, 『비평문학』 제38호, 韓國批評文學會, 2010.
- 尹采根, 「陽谷 蘇世讓 漢詩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第19輯, 한국한문학회, 1996.
- 이종묵, 「조선 초·중기 인왕산에서의 문학활동」, 『인문과학』 제9집,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 이-푸 투안 지음,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2007.
- 전재진, 「時調의 ‘매사냥’ 담론과 문화권적 通涉의 양상」, 『인문과학』 제92집,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 拙稿, 「壬亂收拾期 使行文學 研究」,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 「燕行使들의 間文化的 體驗에 대한 認識 樣相 考察」, 『漢文教育研究』 第35輯,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 「梅溪 曹偉의 燕行文學 研究」, 『漢文古典研究』 第25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
- 최은주, 「연행록 자료 집성 및 번역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제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 洪石影, 「陽谷 蘇世讓 攷: 그의 生涯와 文學」, 『文理研究』 1, 圓光大學校 文理科大學 學徒護國團, 1983.
- 洪性鳩, 「중국 학계의 연행록 연구」, 『대동한문학』 제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 高豔林, 「明代中朝使臣往來研究」, 『南開學報』 第5期, 2005.
- 祁慶富, 「明清時期北京的朝鮮使館」, 『아세아문화연구』 제8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 婁英嬉, 「燕行錄의 研究史回顧」, 『臺灣歷史學報』 43, 2009.
- 王建峰, 「明代會同館管理人員及其職掌考述」, 『煙台大學學報』 第18卷 第2期, 2005.
- 王建峰, 「明朝“提督會同館主事”設置探微」, 遼寧大學學報 第34卷 第6期, 2006.
- 王禹浪·程功·劉加明, 「近二十年中國『燕行錄』研究綜述」, 『哈爾濱學院學報』 第33卷 第11期, 2012.

- 王 靜, 「明朝會同館論考」, 『中國邊疆史地研究』第3期, 2002.
- 劉 晶, 「明代玉河館門禁及相關問題考述」, 『安徽史學』第5期, 2012.
- 李騰淵·譚妮如, 「試論蘇世讓中國使行詩的主要觀點」, 『中國人文科學』第47輯, 중국인문학회, 2011.
- 李善洪, 「明代會同館對朝鮮使臣“門禁”問題研究」, 『曆史學研究』第3期, 2012.
- 李雲泉, 「明代中央外事機構論考」, 『東嶽論叢』第27卷 第5期, 2006.
- 張 爵, 『京師五城坊巷胡同集』, 北京古籍出版社, 1983.
- 漆永祥, 「關於“燕行錄”界定及收錄範圍之我見」, 『古跡整理研究學刊』, 2010.
- 黃永武, 『中國詩學』鑑賞, 設計篇, 臺灣 巨流圖書公司, 1980.

### Abstract

*A Study on Yanggok Soseyang's Yeonhaengsi - Focused on the Aspects of Recognition on 'Hoedonggwan Mungeum' / Lee Soung Hyung\**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Yanggok(陽谷) Soseyang's(蘇世讓; 1486~1562) yeonhaengsi(燕行詩) regarding the aspects of recognition on 'Hoedonggwan(會同館) Mungeum(門禁)' in Peking and its significance as yeonghaeng literature.

Yanggok's yeonhaengsi is mostly 7-eon jeolgu and yulsi in general, and it seems to have been his efforts to cope diplomatically with the arbitrary exams conducted under king's special command and the exchange of poems. Also, we can see that his works contrast the situations of 'Mungeum' and 'excursion' distinctively and describe it frankly.

Looking into his works showing his sense of shame and critical mind towards Mungeum, first of all, we see that Yanggok simply recognized Mungeum as 'Muieodalja (無異於獐子; ones the same as barbarians)', that is, 'Naebok (內服; the status equivalent to that of the sovereign princely states)'. And it was the uncomfortable truth that they mistreated Chosun, a country of courtesy, identically with the barbarians wearing a pigtail. This was recognized to negate or weaken the status of Chosun that was regarded superior to that of surrounding nations. He was in agony as comparing his confined life in Hoedonggwan like a prisoner's to chosu(楚囚; a person living as a captive in a foreign land) and showed critical mind about Mungeum. Yet, he also indicated the aspects of resignation thinking of his wishes for return to his hometown feeling the limitations of positive exchange due to the

---

\* Teacher of Gunpo Hungjin Highschool / great-one@hanmail.net

practice of 'Insinmuoegyo (人臣無外交)'.

Next, examining his works expressing excitedness of 'Hwangdoyuram (皇都遊覽)' and 'Oililchulgwan (五日一出館)', we see that he used all the authentic precedents associated with each of the places in order to express sense of realism and diverse thoughts about the objects he actually saw in the excursion. He made efforts to enhance implication as well as symbolism and also showed his confidence in the excursion. And it is considerably different from his world of works created in the Mungeum situation. His dualistic world of works ma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specific place and situation, that is, Hoedonggwan and Mungeum.

Mungeum was the system that strictly restricted not only Chosun yeonhaengsa's outing but also exchange with people, too, so it is the biggest reason why we can hardly find their exchange with foreign figures or description of Peking in Yeonhaengrok written in Ming Dynasty.

**【Key words】** Hoedonggwan(會同館), Mungeum(門禁), Yanggok(陽谷), Soseyang(蘇世讓), Yeonhaengrok(燕行錄), Yeonhaengsi(燕行詩), Yeonhaengsa(燕行使)

투고일 : 4월 30일, 심사일 : 6월 9일, 게재확정일 : 6월 14일